

# 다빈치서 앤디워홀까지... 초보자를 위한 서양미술 안내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이해한 만큼 보이는 서양미술 상식사전

아키토모 유지 지음, 나지윤 옮김

‘베네체 아트사이트나 오시마’는 일본의 버려진 섬을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시켰던 아트 프로젝트다. 아키토모 유지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미술인이다. 나오시마 섬의 지중미술관 관장에 이어 가나자와21세기 미술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도쿄예술대학 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아키토모 유지가 미술에 대한 교양을 쌓고 싶은 이들을 위한 서양미술 입문서 ‘이해한 만큼 보이는 서양미술 상식사전’을 발간했다. 저자는 시대별 대표 화가와 영화의 탄생에 관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준다. 한마디로 책은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인 시대상과 표현법을 바탕으로 풀어낸 서양미술 안내서다.

서다. 먼저 저자는 14-16세기에 이르는 르네상스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문화를 재발견하는 시대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었다. 가장 유명하고 신비로운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다재다능한 천재가 완벽을 추구한 끝에 이룩한 경이로운 성취”로 본다.

나무판에 유화로 그린 작품으로 북유럽에서 이탈리아로 전해진 유희기법을 차용했다. 그림 속 모델이 레오나르도의 생이 별한 어머니 초상화라는 설, 성모 마리아라는 설,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라는 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레오나르도의 기법들과 맞물려 그림을 신비롭게 보이게 한다.

17세기 바로크 시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 유럽이 신교와 구교로 나뉜다. 저자에 따르면 이 시기는 동시대 서민의 생활상을 담은 그림이 유행했다. 또한 가톨릭 국가들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화려한 종교화를 추구했다.

이 시대 대표작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소박한 일상을 담은 그림은 정확한 묘사와 탁월한 색채 표현이 돋보인다. 특히 핀홀 카메라 원리를 적용한 장치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활용해 한 치의 오차 없이 대상을 묘사했다.

1850년대 이후 사실주의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난 시기다. 화가들은 신화가 아닌 눈앞의 현실을 그리는데 역점을 뒀다.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는 당시 매춘부를 모델로 그린 그림이다. 이 작품은 주제뿐 아니라 표현 기법에서도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술의 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상주의는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를 풍미했다. 근대화 속에서 아카데미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으며 눈에 보이는 세상을 화가의 감성으로 표현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초창기 어두운 그림에서 탈피하고 인상주의를 접한 고흐의 대표 작품이다.

저자는 “인상주의가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색을 선택했다면 고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색을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아수주의는 190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쳐 있다. 대상에서 색채를 해방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심리를 색채로 표현했다. 앙리 마티스는 거침없는 도전으로 대담한 작품을 발표했다. ‘마티스 부인의 초상 혹은 녹색 선’은 원색과 보색을 구사해 ‘모델의 인상뿐만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모델의 내면까지 표현’하고 있다.

대상에서 형태를 해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 입체주의(1900-1920)는 20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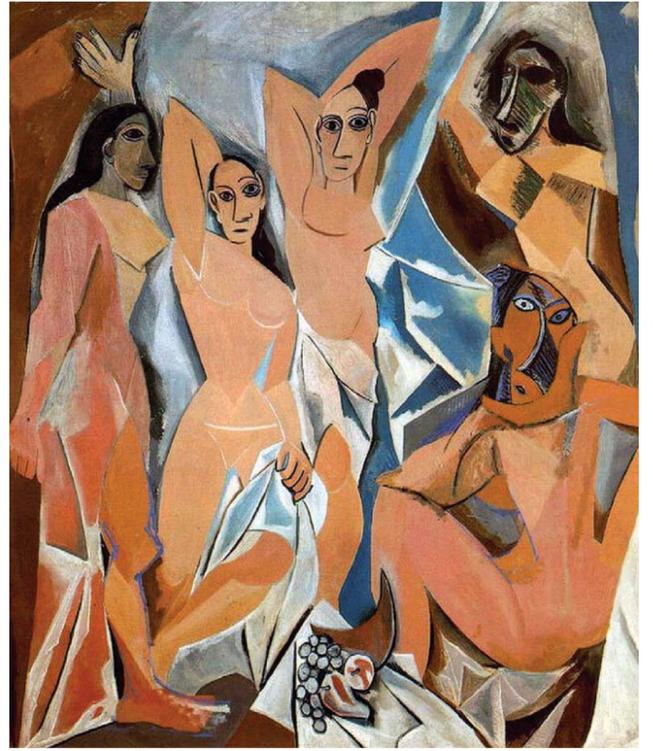
미술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은 미술사에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이다. 피카소는 기존의 견고한 상식을 과감히 깨뜨렸는데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대상을 해체한 후, 일부를 가져와 화면에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입체주의와 함께 동시대에 등장한 유포는 표현주의다. 캔버스에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예술운동이다. 사회적 불안을 담은 메시지를 표현했으며 일관된 양식보다는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했다. 에드바르트 뭉크의 ‘질주’는 해골 같은 남자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형상화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비명을 듣고 있는 남자를 표현한 것이다.

이후 등장한 추상주의는 사실주의에 반발해 시작한 예술운동이다. 여기에는 화가의 내밀한 감정을 그리는 자기 표현적 추상과 화가의 세계관을 그린 기호학적 추상으로 나뉜다. 피에트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은 “세상을 수직과 수평으로 표현한 회화 혁명”이라고 표현된다.

이후 자유분방한 속에 내재된 삶의 예환에 초점을 맞춘 ‘에콜 드 파리’, 기존 예술을 부정한 ‘다다이즘’, 인간의 무의식을 표현했던 ‘초현실주의’, 현대미술의 중심축을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이동시킨 ‘추상표현주의’, 대중 소비사회의 양상을 형상화한 ‘팝아트’가 이어진다.

(길벗·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키토모 유지의 ‘이해한만큼 보이는 서양미술 상식사전’은 르네상스 이후부터 20세기 팝아트까지 아우르는 서양미술사 안내서이다.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 (길벗 제공)

## 철도원 삼대

황석영 지음

작가 황석영이 일제 강점기부터 100년 근현대사를 다룬 장편 ‘철도원 삼대’를 펴냈다. 원고지 2000매가 넘는 분량의 소설은 속도감 넘치는 전개와 생생한 캐릭터, 아울러 작가의 필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역사와 허구, 현재와 과거, 사료와 옛이야기를 오가며 풀어내는 작가의 입담은 장편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황 작가가 ‘유년기의 추억이 깃든 내 고향의 이야기이며 동시대 노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보듯 소설은 남과 북 이념을 뛰어넘는 사람에 관한 서사다. 구상부터 집필까지 30년이 걸린 것은 한반도 100년을 반드시 이야기로 완결하겠다는 의지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현재는 남과 북의 관계가 뒤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남과 북을 잇고 대륙을 건너는 철도를 꿈꾸게 한다는 점에서 묘미가 있다. 작품은 이백만, 이일철, 이진오의 이어지는 철도 노동자 삼대와 오늘의 시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이백만의 증손이자 노동자 이진오의 이야기가 큰 축이다. 해고를 당한 이진오의 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 중 이다. 그는 페트병 다섯 개에 죽은 이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에게 말을 걸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다. 그는 증조할머니 ‘주안댁’, 할머니 ‘시금’, 어린 시절 친구 ‘작새’, 노동자 친구 ‘진기’, 크레인 농성을 버텨낸 노동자 ‘영숙’을 불러내는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자신에게 전해진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

작가는 “우리 문학사에서 빠진 산업노동자를 전면에 내세워 그들의 근현대 백여년에 걸친 삶의 노정을 거쳐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삶의 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것은 이자리지고 뒤돌리고 하려서도 풍우의 세월을 견뎌온 한국문학이라는 탑의 한 부분에 돌 하나를 끼워넣는 작업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창비·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마크 해리스 지음, 이영석 옮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세계의 시간을 19세기 후반으로 후진시켜버린 느낌이다. 국제 협조는 느슨해지고 세계보건기구 역할 또한 미미하다. 각국은 자국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 국경 폐쇄, 무역 중단 등 ‘격리’를 취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21세기 세계 질서 재편과 맞물려 지구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역사는 21세기의 시간을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 같다. 그만큼 코로나의 파괴력은 깊고 넓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라는 낯선 용어는 일상을 바꾸는 것은 물론 친숙한 말이 됐다.

14세기 페스트에서 콜레라, 황열병, 조류 독감, 21세기 사스와 메르스까지 전염병을 다룬 책이 발간됐다. ‘전염병과 근대 세계’의 저자인 마크 해리스 영국 옥스퍼드 교수가 펴낸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는 전염병과 무역이 맞물린 21세기 세계화를 조명한다.

1860년대 영국 의사 윌리엄 버드는 전쟁과 무역을 역사의 ‘전제자’로 꼽았다. 두 요인이 역병을 낳고, 그로 인해 역사의 흐름이 바뀐다는 논리다. 19세기 중반 콜레라나 황열병 확산 뒤에는 노예무역을 비롯한 국제교역과 노동 이주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염병이 세계화에 부정적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다. 한 나라 힘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해지면서 국제협력시스템을 이끌어낸 적도 있다. 1907년 전염병 정보 수합 및 통지 업무를 담당할 ‘국제공중보건국’이 파리에 설립됐는데, WHO의 전신이다.

작품의 코로나 19 사태는 국제 공조를 토대로 새로운 방역 방식과 제도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겼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푸른역사·3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클래식 상식사전

마쓰다 야우코 지음, 나지윤 옮김

클래식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연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길고 지루한 음악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오랜 시간 연주하는 장면이 떠올를 수도 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와도 기초 상식이 없어 그냥 흘러들리는 경우가 많다. 클래식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즐거움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될 ‘클래식 상식사전’이 출간됐다.

콘서트 기획을 총괄하는 회사의 대표인 저자 마쓰다 야우코는 갓이 여자대학 음악학부 피아노 오르간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2013년 도쿄 필하모니 홍보섭외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공연’,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 기념공연’ 등 국제적인 문화 행사를 이끌었다.

그는 책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경험했는데 그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문득 사람을 감동시키는 음악의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져 음악학부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특히 “살면서 포용력이 줄어들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인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음악 속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은 악보의 탄생부터 현대 음악까지 시대별로 장을 나누어 설명한다. 시대별로 대표적 음악가와 작품을 선별해 수록했으며 교향곡과 관현악곡의 차이, 악기 소개, 음악가 연표 등도 담았다. 세계적 거장 정명훈 지휘자의 인터뷰를 통해 클래식 역사의 살펴보는 코너도 있다. 부록에는 클래식 음악 입문자를 위한 추천곡 10곡,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 30편도 실려있어 재미를 더한다. (길벗·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코로나19 시대 '뉴노멀 라이프' - 코로나 블루 치유해주는 전남의 행복숲, 코로나19 탈출법 '그린 힐링 BOOK', 세계도시들의 프로젝트 '랜선여행', 대세가 되다

화제의 문화현장-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

주인의 삶에 스며든 건축, 공공건축의 미래를 보다

클릭, 문화현장-고흥 남포미술관 개관 15주년, 전국 브랜드로 성장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단순한 디자인의 모던 감성 덴마크 코펜하겐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할머니들의 이야기, 다큐 '정하게 이베네' 연출자 정경희 KBO리그 움직이는 광주·전남 출신 야구선수들

**예향 초대석**

자연요리 연구가 '방랑식객' 임지호  
"요리의 첫마음은 자연에 대한 감사조"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깊은 뿌리 지닌 온고을 문학 전주 전북문화관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펫영양사에게 배우는 반려견 건강 자연식

문화계 핫 이슈  
"5060 생각 회로 바꿔 디지털에 접속을"

전시 리뷰  
<불혹: 더 나은 날을 위하여>전

유연준의 도시건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도시

백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나이는 숫자" 중장년, 대중문화 새 패러다임

힐링 투어  
'건강의 섬' 신안으로 떠나는 초여름 나들이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세기말 '역사적 개인' 칸딘스키의 등장

싸움꾼 남도 한 바퀴-광양  
남도여객 매역 일머지, 가진 푸른 여객

정자, 차밭, 다산의 자취  
전통의 범용소주-생막걸리

**이농야**  
Vol. 296

특집: 코로나19 시대 '뉴노멀 라이프' - 행복숲, 랜선여행, 반려동물 찾기, 자유의 섬 신안에서 체험 여행